

'레전드' 폰세... 신기록 사냥 GO!

선발 15연승·최소 경기 200탈삼진
"국내 최고 투수" 이의 제기 없어
23경기 등판... 6개 부문 1위 질주
7차례 더 오를 듯... +5승 땀 20승
류현진 1.82 ERA 기록 넘어설 듯
탈삼진 262개 신기록도 사정권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인 선동열(62) 전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현역 시절 마운드에서 몸을 푸는 것만으로도 상대 팀에 공포감을 심어준 선수였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해도 모자랄 판에 심리적으로 '칠 수 없다' '이기 힘들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심리전에서 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셈이었다.

지금 KBO리그에서는 코디 폰세(31-한화 이글스)가 선동열처럼 불기 전부터 상대 팀에 백기를 내밀게 하는 선수다.

폰세는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7이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다.

올 시즌 23번의 등판에서 15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KBO리그 개막 최다인 15연승 신기록을 수립했고 탈삼진 9개를 추가해 시즌 202탈삼진으로 리그 최소 경기 200탈삼진 기록도 세웠다.

폰세와의 대결을 앞둔 롯데 벤치에서부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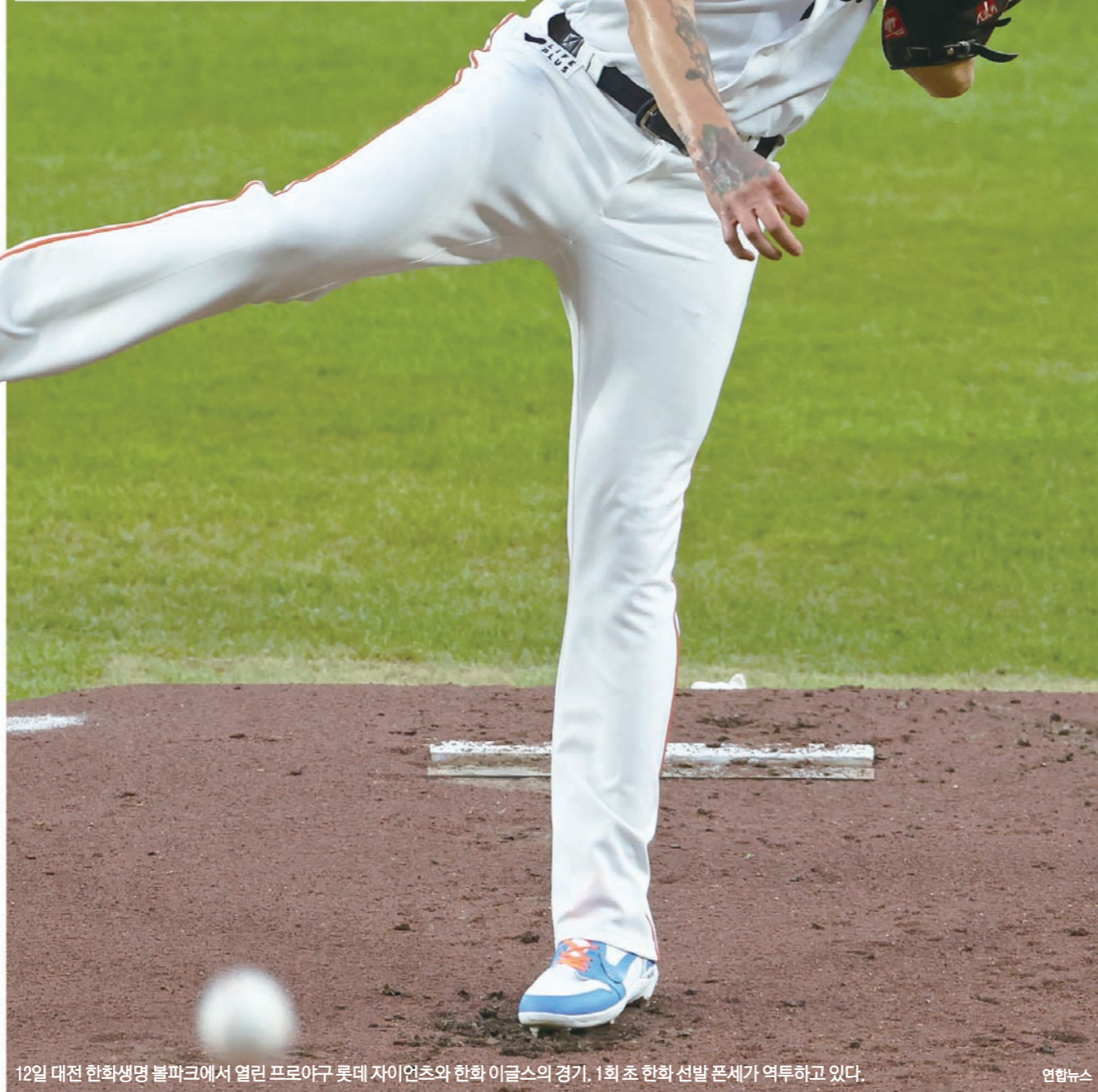
김태형 롯데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폰세는 준비한다고 잘 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면서 "국내 최고의 투수인데 방법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감독의 우려대로 폰세는 롯데 타선을 마치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제압하고 개막 최다 연승과 최소 경기 200탈삼진 신기록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폰세의 시즌 성적은 23경기 145%투구이닝(1위), 15승(1위) 무패, 평균자책점 1.61(1

시즌	소속팀	선수	단일 시즌 탈삼진 기준	
1	2021	두산	미란타	225탈삼진
2	2022	키움	안우진	224
3	1984	롯데	최동원	223
4	1996	롯데	주형광	221
5	1983	삼미	장명부	220
6	2001	SK	에르난데스	215
7	1986	해태	선동열	214
8	1991	해태	선동열	210
9	2012	한화	류현진	210
10	2023	NC	페디	209
11	2020	롯데	스트래일리	205
12	2006	한화	류현진	204
13	1996	한화	정민철	203
14	1985	삼성	김시진	201
15	1988	해태	선동열	200
16	2025	한화	폰세	200

최소경기신기록 23경기만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1회 초 한화 선발 폰세가 역투하고 있다.

위), 202탈삼진(1위), 이닝당 출루 허용(WHIP) 0.86(1위), 피안타율 0.185(1위)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순위표 꼭대기에 자

리해 규정이닝(144이닝)을 돌파한 현재 당장 시즌을 마친다고 해도 리그 최우수선수(MVP)급 성적이다.

이제 폰세가 정복할 만한 다음 지표는 20승과 1점대 평균자책점, 시즌 탈삼진 신기록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한화가 정규시즌 37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폰세는 선발 순서를 거르지 않는다면 7차례 정도 더 등판할 수 있다. 여기에 5승을 추가하면 역대 KBO리그 23번째로 시즌 20승 고지를 정복하게 된다. 전신인 빙그레를 포함해 한화 선수의 단일 시즌 최다승은 1992년 송진우가 거둔 19승이다.

또한 1점대 평균자책점 역시 의미 있는 기록이다. KBO리그의 마지막 1점대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이 2010년 남긴 1.82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폰세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했던 팀 동료 류현진의 열렬한 팬이다. 5월17일 대전 SSG 랜더스전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8개를 잡아 내 류현진이 보유했던 9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17개) 기록을 깬 폰세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향해 전진한다.

2021년 두산 베어스 아리엘 미란타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225개) 기록은 이미 사정권이다.

폰세가 지금 추세대로 시즌을 마칠 경우 262개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WAR) 역시 역대급 추세다.

올 시즌 23경기에서 WAR 7.94(스테티즈 기준)를 쌓은 폰세는 시즌 30경기에 등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WAR 10.36으로 시즌을 마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일 시즌 WAR 10을 넘긴 투수는 1986년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12.29),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장명부(10.98), 1985년 삼성 라이온즈의 김시진(10.85) 3명뿐이다.

1986년 선동열은 24승 6패, 6세이브, 262%이닝, 평균자책점 0.99의 기념비적인 성적을 남겼고, 1983년 장명부는 전무하고, 나와서도 안 될 단일 시즌 30승과 427%이닝을 소화했다.

1985년 김시진은 25승 5패, 10세이브, 269%이닝, 201탈삼진 평균자책점 2.00으로 다승과 탈삼진 타이틀을 따내고 삼성의 전후기 통합 우승을 견인했다.

프로야구 초창기의 전설적인 선수들을 소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시즌 폰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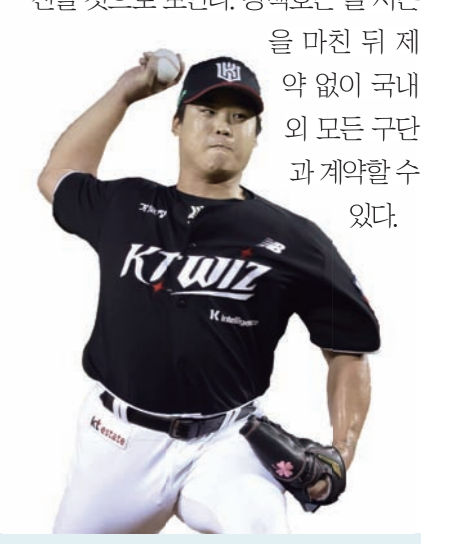
정작 폰세는 12일 경기 후 "공극적인 목표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뿐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백호 MLB 진출 눈앞? 글로벌 에이전시와 계약

2025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프로야구 kt wiz의 멀티플레이어 강백호(26-사진)가 글로벌 에이전시와 계약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등 북미 프로스포츠를 거점으로 삼는 파라곤 스포츠 인터내셔널은 13일 강백호와의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MLB 로스터에 포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파라곤은 밀워키 브루어스의 간판스타 크리스찬 엘리치 등 다수의 빅리거를 대리하는 에이전시다.

국내 소속사가 따로 있는 강백호는 파라곤을 통해 해외 구단과의 접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백호는 올 시즌을 마친 뒤 계약 없이 국내의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광복절 다음 날에 한·일전 여자배구 4연패 설욕할까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광복절 다음 날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에서 속명의 한·일전을 치른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대표팀은 16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회 4차전에서 일본과 대결한다. 역대 150번째 한·일전을 앞둔 우리나라 여자배구 성인 대표팀과 일본의 대결은 치열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0-3 패배를 시작으로 지난날 10일 국제배구 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0-3 패배까지 총 149번 맞붙어 상대 전적 55승94패를 기록했다.

김연경이 2021년 8월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면서 일본과 맞대결에서 다시 열세에 몰렸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VNL에서 만난 차레 맞붙어 모두 0-3으로 쳐 4연패 중이다.

E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